

다성성 또는 말하기 장르의 경계 넘나들기

김주관*

1. 들어가는 말

일차적인 대상을 다루는 방법의 측면에서 언어인류학의 역사를 요약한다면 서로 다른 문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 현상을 특정의 범주들로 나누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의 연구자들은 사피어(Sapir)가 문화와 언어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필수적인 범주들에 관심을 두었고, 언어와 인지 체계간의 관계를 연구해 온 민족과학자들은 특정의 의미 영역이 문화에 따라 어떻게 달리 조직되는가를 중요한 작업으로 삼았다.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자들은 사회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말하기 장르와 각각의 장르가 운용되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¹⁾

하지만 초기 문화와 언어 연구에서는 주로 문법적인 범주를, 민족과학에서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범주를 주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일상적인 말하기 행위와는 별 관련이 없는 범주들을 다루어 왔다. 실제로 말하기의 장르가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잡은 것은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에 이르러서였다.

하임즈가 말하기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한 SPEAKING 모델에

*목포대학교 호남학연구소 연구교수

1) 언어인류학의 조류와 전반적 개관에 대해서는 왕한석(1987)을 참조할 것.

따르면, 장르는 전통적인 장르의 범주뿐만 아니라 상이한 말하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명확하게 규정된 형식의 말하기 사례 또는 말하기 행동으로 이해된다(Hymes 1974: 54-60).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의 접근법이 언어인류학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언어인류학자들은 한 언어공동체에서 발견되는 개별적인 말하기 장르의 민족지적인 기술에 주력하여 왔다.²⁾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특정의 말하기 사례나 행동과 주어진 말하기 상황간의 관계 설정, 즉 말하기 장르를 설정하는데 있어 대체로 두 가지 경향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나는 각각의 말하기 장르들이 상호 배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된 말하기 장르는 특정의 말하기 사례나 행동은 특정의 말하기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말하기 행위로 한정된다. 또 다른 하나는 일상적인 말하기 장르가 다른 보다 한정된 말하기 장르의 양식들을 차용하는 경우이다. 보통 이러한 차용은 화자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아프리카 남동쪽 해안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용되는 말라가시어(Malagasy)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말하기 양식이 존재한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하기 양식은 레사카(resaka)라 불리는 장르이고, 의례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장르는 카바리(kabary)라 불리는 양식이다. 보통 카바리는 혼례나 장례와 같은 의례의 상황에서만 쓰이는 말하기 사례로 일상의 대화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아주 배타적인

-
- 2)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은 말하기를 민족지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다양한 말하기 행위들이 민족지적 기술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의례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말하기 행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말하기 행위도 주요한 대상이 되어왔다. 이 각각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말하기 행위들이 하나의 장르로 간주될 수 있다. 일상적인 말하기의 민족지적 기술로는 Basso(1979)를 들 수 있고, 특정 상황들과 연관된 말하기 장르에 대한 기술은 Keenan and Keenan(1978), Sherzer(1974, 1983), Duranti(1994)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범주의 말하기 행위라 할 수 있다. 반면 레사카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말하기 행위이지만, 화자의 특별한 의도-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회피하려는 전략-에 의해 카바리 양식이 원용되기도 한다(Keenan and Keenan 1978). 말하기 장르에 대한 이러한 기술은 보다 배타적인 특정의 말하기 장르가 갖는 자기 완결성이란 점과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일상적 말하기 장르의 개방성이란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의 말하기 장르는 항상 배타적으로 사용되는가? 일상적인 말하기 장르가 다른 장르로 원용되는 경우는 없는가? 특정의 말하기 장르가 일상의 말하기 장르로 원용될 때는 항상 화자의 의도가 개입되는가?

하지만 일상의 언어 행위에서 어떤 말하기 장르들은 장르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배타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화자의 특정한 의도가 없이도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용되기도 한다. 즉 특정 장르의 말하기 양식이 다른 말하기 장르에서 쓰일 때, 구조적으로 그 쓰임새가 위치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장르에 속한 말하기 양식들이 단지 병치되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멕시코 중부에 거주하는 나후아틀(Nahuatl) 화자들은 스페인어와 메히카노어(Mexicano)를 전혀 다른 영역에서 사용한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이 두 언어는 서로 다른 장르의 언어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나후아틀 화자는 특별한 의도가 없이 메히카노어와 스페인어를 병치하여 사용한다(Hill 1995).³⁾

지금까지 언어인류학자들이나 사회언어학자들은 언어변이형의 존재나 상이한 말하기 장르의 존재를 그 각각이 갖는 기능적 측면에 설명의 초점을 맞추으로써, 병치되어 쓰이는 말하기의 관행에 대해서는 그리 주목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실제로 자연 발화에서는 기능적으

3) Hill and Hill(1986)은 이러한 언어 사용을 언어혼합(linguistic syncretism)으로 설명하지만, Hill(1995)에서는 다성성(multivocality)으로 설명하고 있다.

로 또는 화자의 의도로 설명할 수 없는 말하기의 사례들이 자주 발견된다. 이런 종류의 말하기 사례는 말하기가 갖는 효과보다는 말하기의 현상적 측면에 보다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들어 언어인류학이나 사회언어학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 바호젠 학파의 개념들, 예컨대 다성성(multivocality), 다음성(polyphony), 이의어(heteroglossia)⁴⁾ 등은 말하기 현상에 대한 유용한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Bahktin 1968, 1981, 1986; 1984, Voloshinov 1986). 한 언어공동체 내의 다양한 언어 변이형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말하기 장르들의 존재는 어떤 합목적적인 이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변이형들의 교체나 장르간의 원용은 특정의 말하기 상황에서 화자에 의한 의도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 언어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지금까지 언어인류학에서 다루어 온 장르의 개념과 관련하여 장르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말하기 관행을 기술하는 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장르의 개념, 즉 “무시간적이고 고정되어 있으며 단일한 구조” (Briggs and Bauman 1992: 143)가 아니라, 특

4) 본고에서는 기존의 번역어를 사용하지 않고 필자의 번역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개념들을 보다 명확히 사용할 필요에 의해서 이기도 하지만, 그간 한국에 소개된 바호젠이나 볼로쉬노프의 저작들에서 번역상의 문제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많은 번역서나 논문에서 다성성(multivocality)과 다음성(polyphony)을 구분없이 ‘다성성’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둘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다성성은 한 사회내에, 또는 한 개인에게 목소리가 다중으로 존재한다는 현상에 대한 용어라면, 다음성은 그 다중의 목소리들 간의 관계, 또는 목소리들의 존재 양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바호젠이 음악 용어를 차용하면서 왜 단음성(homophony)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성(polyphony)라는 용어를 선택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정 장르의 사용을 “발화의 조직과 그 발화가 일어나는 사례의 조직 간의 상호 작용 내에서”(Briggs and Bauman 1992: 142) 찾아야하는 역동적인 말하기 상황을 기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⁵⁾ 결국 언어 인류학에서 사용되는 장르간의 교차 사용이라는 말하기 관행이 바흐친의 다성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고는 ‘군대말’와 ‘사제말’이라는 두 장르의 말하기 관행이 군대라는 언어공동체 내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기술하고자 한다.⁶⁾ 지금까지 군대말에 대한 연구는 김주관(1989), 박용한(1997), 이정복(1998, 2001) 등이 있지만, 이 연구들은 존대말이 군대말과 사제말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쓰이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군대말과 사제말 각각이 하나의 독립된 말하기 장르로서 존재하며, 이 두 장르 간에 교차 사용되는 말하기 관행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텍스트를 형성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고는 장르 간의 말하기 교차 사용이 어떻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엮어가는 하나의 텍스트를 형성하는가를 기술하려는 것이다.

2. 말하기의 장르의 변별성

장르는 문학과 수사학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개념이지만, 최근 들어 그 사용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문화적 현상의 분석에서도 전형적인 행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Bazerman 1988, 1994; Berkenkotter and Huckin 1995; Miller 1984; Orlikowski and

5) 언어인류학에서 사용하는 장르의 개념은 바흐친이 사용한 장르의 개념, 즉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맥락 종속적인 텍스트라는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Bakhtin 1986: 60-102).

6) 본고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필자의 석사학위논문(김주관 1989)을 위해 수집했던 것들이다. 조사는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에 실시되었다.

Yates 1994). 본고에서 사용하는 말하기 장르의 개념도 전통적인 문학이나 수사학의 개념보다는 보다 확장된 의미의 것으로, 한 언어공동체의 성원들에 의해 상이하다고 인식되는 관습적인 말하기 행위들을 말한다. 따라서 말하기 장르는 언어공동체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단기사병으로 이루어진 언어공동체 내의 말하기 관행은 두 개의 장르로 구분된다. 공동체 성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빌면 '군대말'과 '사제말'로 구분되는 이 장르들은 문종결어미에서 그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입대 후 가장 먼저 듣는 교관이나 조교들의 말에서 함축적으로 표현된다. 즉 "이제부터 '요', '요' 하지 마라. 군대에서 모든 말은 '다', '까', '오'로 끝난다. 너희들은 이제 사제인이 아니다. 밖에서 쓰던 말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말에서 군대말과 사제말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제급에 의해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관계가 규정되며, 행위의 집단적인 표준성과 획일성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군대 문화(김종호 1985:2-3)가 군대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의 말하기 규범은 하급자가 모든 상급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 말하기 규범을 어겼을 때는 시민사회의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 자식, 아직도 사제(私制)야? 여기가 니네 안방인줄 알아? 똑바로 말해"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입대 동기나 하급자에게는 '해'나 '해라'체를 사용한다. 이 경우도 상급자의 말하기 규범과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사용되도록 강요된다. 즉, 상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급자에게 존대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군대말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1)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① 평서문

애들 데리고 나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대장님이 부르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열외가 없습니다.

② 의문문

저쪽은 사제 지역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상황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저 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③ 명령문

상병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염려 놓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 사항을 명심해서 들어 주십시오.
저 대신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별 문제 되겠습니까?

(2) 동급자 간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① 평서문

일병, 그런 눈으로 볼 것 없다.
야! 내 건 없어 졌어.
없다. 미안하지만 있어두 없다.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시범을 보여 주겠다.
자, 여기 있어.

② 의문문

야, 일병! 무섭냐?
 너 휴가 중에 무슨 일 있었지?
 왜? 너 낀 어쨌는데?
 자식, 그런거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해?
 야! 없어진 걸 어떻게 하나?

③ 명령문

일병, 솔직히 말해.
 야, 야! 수입포 좀 빌려 주라.
 야! 청소 좀 잘 해라.
 야, 신병! 이리 와.
 이병, 그것 좀 가져 와라.

이상의 용례들로부터 군대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채택되는 말단계의 대표형들은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군대말의 장르적 특성은 일반적인 존대말 사용의 용례와 비교해 볼 때, 말단계의 수가 적고 보다 격식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어미를 이상적인 언어 표현 형태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상 언어공동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군대 사회에서 개별 성원을 구분하는 이상적 속성은 계급이라는 요인밖에 없기 때문에 말단계가 존대와 비존대의 두 등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존대말

<표 1> 군대말의 문종결어미

	평 서 문	의 문 문	명 령 문
존 대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비 존 대	한다 해	하나 해	해라 해

에서 격식적인 어미를 사용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절도를 요구하는 군대 사회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군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장르인 사제말은 존대말에서 '해요'체를 사용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물론 '-습니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의 사용은 계급 차이가 많이 나거나 친밀도가 형성되지 않은 상급자와의 대화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대화 참여자의 상호 작용에서 행위의 기준은 계급에 기초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경우의 존대말 사용은 군대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제말에서 사용되는 존대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① 평서문

애인 같은 거 없어요.
 알아요. 여기서 나고 자랐어요.
 예, 이젠 좀 할 만 해요.
 그럼요. 우리한테 잘 해 줬는데요.
 제가 일단 해 보죠.

② 의문문

그럼 분대장님은 가만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대체 어디서 나타났어요?
 사격 가려나 보죠?
 왜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③ 명령문

이쪽으로 오지 마요.
 일병님, 이것 좀 도와줘요.
 약속은 꼭 지켜요.

〈표 2〉 사제말의 문종결어미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존대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비존대	한다 해	하나 해	해라 해

사제말의 비존대어는 군대말과 마찬가지로 ‘해(라)’체가 사용된다. 이러한 사제말의 말단계는 〈표 2〉로 요약될 수 있다.

사제말의 특징은 현행 존대말의 변화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대 한국 존대말 체계에서 ‘해요’체의 쓰임이 젊은 층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며(서정수 1984: 215-226) 말단계의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존대어로 두루 사용된다는 지적(성기철 1984; 한길 1991, 2002)을 볼 때, 조사 대상 언어공동체 성원들이 사용하는 사제말의 형태는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두개의 서로 다른 말하기 장르들은 적어도 존대의 표현에 있어서 형태론적으로 확실하게 구분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이 실제로 말하기 상황에서 사용되는 사례들을 살펴 볼 것이다.

3. 자연 발화 상태에서의 말하기

일상적인 말하기 장르를 제외한 특정의 말하기 장르들이 표현되는 것은 실제로 특정의 말하기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사모아(Samoa)에서나 쿠나(Kuna)에서의 정치적 연설은 정치적 성격을 갖는 집회에서 행해지며(Duranti 1994; Sherzer 1983). 마다가스카르의 카바리는 혼례를 위한 집회와 같은 아주 공식화된 의례에서 사용된다(Keenan and Keenan 1978). 본고에서 다루는 군대말과 사제말이

라는 장르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말하기 상황과 조용하여 사용된다. 군대말은 군대 사회의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또 사제말은 시민 사회의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대상 언어공동체에서 군대 사회의 성격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상황은 영외 훈련을 할 때이고, 시민 사회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퇴근 후 영외에서의 상황이다.⁷⁾ 이 각각의 상황에서는 군대말과 사제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영외 훈련시의 말행위

단기 사병들에 있어서 영외에서 실시되는 훈련 기간은 군인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강조되는 상황이며, 따라서 모든 행위의 규범이 군대 사회의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된다. 말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서 계급에 기초한 상명하복이라는 군대 사회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말사례-1>

물리적 환경: 이동로 도로상

사회적 장면: 부대로부터 훈련시 주둔지로의 이동을 위한 행군 중 휴식 시간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육체적으로 피로하기 때문에 많은 대화가 없음.

참여자간의 관계: A - 4기, B와는 같은 분대이고 친밀한 관계.⁸⁾

B - 9기, A보다 4살 많음.

-
- 7) 시민 사회나 군대 사회와 비교하여 달리 나타나는 단기 사병들의 지위나 일상 생활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김주관(1989)을 참조할 것.
- 8) 여기서 '기수'는 훈련소의 기수를 말한다. 대체로 한달 단위로 한 기수가 나뉘는데, 실제로 계급의 차이를 정하는 것은 실제 계급 보다는 기수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같은 일병이라 하더라도 기수가 한달 빠르면 상급자로 간주된다.

A: (B에게) 야, 가서 물 좀 떠 와라.

B: 예.

위의 <말사례-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하기의 행위는 전적으로 군대 사회의 규범을 규정하는 계급에 기초하고 있다. 즉 A가 B보다 4살이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수라는 계급의 차이를 말행위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A가 시민 사회의 규범인 연령의 상대적인 차이보다는 계급의 상대적 차이를 채용하고 있으며, B도 그의 응답에서 이 기준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말하기 사례들은 영외 훈련의 상황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의 말사례도 이러한 말하기 행위의 한 예이다.

<말사례-2>

물리적 환경: 훈련 주둔지

사회적 장면: 식사 집합하여 배식이 끝나고 분대별로 식사 중이며, 농담도 주고 받는 등 비격식적이지만
성원들간에는 훈련의 연장으로 인식됨

참여자간의 관계: A-4기, 분대장, C보다 3살 아래임.

B-7기, C보다 4살 아래임.

C-9기, A, B보다 연령 지위 높음.

A: (분대원들에게) 어때? 힘들지 않냐?

B: 나야 벌써 몇 번 해 봤으니까 재미있는데, 신병애들이야
힘들겁니다.

A: (C에게) 야, 너도 처음이지? 힘들지 않냐?

C: 예, 괜찮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말사례들은 시민 사회의 규범인 연령차와 군대 사회의 규범인 계급차가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들로, 이러한 사례들이

군대말의 사용을 보다 더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즉 시민 사회의 규범과 군대 사회의 규범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군대 사회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형태론적으로 '합니다' 체 특징지워지는 군대말의 장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며, '해요' 체로 특징지워지는 사제말의 장르는 사용되지 않는다.

2) 퇴근 후 영외에서의 말행위

단기 사병들이 퇴근 후에 갖는 영외에서의 모임은 그 성격에 따라 공식적인 것도 있고 비공식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로 시민 사회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물리적인 환경이 영외의 시민 사회라는 점도 있지만, 반민반군(半民半軍)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기 사병들이 사복을 입고 있는 동안만은 군대와 관련된 일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외에 나와서 부대 내의 얘기가 시작되면 “밖에 나와서까지 골치 아프게 군대 얘기냐?”며 제지를 받게 된다. 이들에게 있어 사복(私服)은 군복(軍服)이 갖는 상징성과 대비되어 시민 사회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복을 입게 되는 영외의 상황은 단기 사병들로 하여금 시민 사회의 규범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적 지위를 완전히 떨쳐 버릴 수 없는 제약을 동시에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과 지위의 갈등이 이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시민 사회의 규범을 따르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말행위가 전적으로 시민 사회의 유형과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사제말'의 장르가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말사례-3〉

물리적 환경: 퇴근 후 간이 주점

사회적 장면: 귀가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술 마시는 자리
로 화제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눔. 여

러 기수가 혼재함.

참여자간의 관계: A-8기, B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음을 알고 있으며 아직 그리 친밀한 관계는 아님.

B-10기, A보다 4살 많음.

A: 말 놓으세요. 부대 밖인데 뭐 어때요. 부대 안에서야 다른 고참들도 있고 하니까 별 수 없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말 놓으세요. 오히려 제가 불편해서 안되겠어요.

B: 그래도 고참인데. 하긴 군대 생활 평생 할 것도 아닌데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

위의 말하기 사례는 행위의 규범 자체를 시민 사회의 것, 즉 연령차를 채택하고 있으며, 말행위도 그에 준해서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하기 사례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보여지는 것으로 대화 참여자들이 명시적으로 자신들의 관계를 시민 사회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도 영외의 상황에서는 '사제말'의 장르를 채택하는 말사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말사례-4>

물리적 환경: 통근 버스 안

사회적 장면: 퇴근시 통근 버스 안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눔.

참여자간의 관계: A-9기, B와 대학교 동문이지만 2년 후배. 군입대 후 알게 되었으며 같은 중대이지만 다른 소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은 별로 없는 관계임.

B-10기, A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며 아래의 대화 장면에서에 대한 정보를 처음 알게 됨.

A: 이 차 타세요? 택이 XX쪽인가 보죠?

B: 예. 집이 나하고 같은 방향인가 봐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오늘 한번 타봤어요.

A: 저-, XX대학 졸업하셨다면서요? 저는 XX과 졸업했는데, XX학번이에요.

B: 그래? 난 XX학번이야.

A: 예, 한테 형 얘기 들었어요.

<말사례-4>에서는 비록 서로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시민 사회의 규범에 의한 관계를 알게 됨으로써 사제말을 서로 사용하게 된다.

위의 사제말 사용의 예들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말하기 상황을 시민 사회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말하기 행위도 그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경우, 시민 사회의 성격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해요' 체로 특징지워지는 사제말이 화자간에 채택되어지고, 군대말은 완전히 배제된다.

지금까지 말사례들로부터 특정 장르의 말하기가 특정의 상황과 어떻게 밀접히 연관을 가지는가를 알아보았다. 어떤 말하기의 전형적인 상황에서는 그에 합당하는 말하기의 장르가 선택된다는 점, 다시 말해서 말하기 장르가 맥락 종속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상 언어공동체에서는 군대 사회의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는 군대말이, 시민 사회의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는 사제말이 사용됨을 통해서 이 두 말하기 관행이 각각의 독립된 장르로서 규정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다성성 또는 장르의 경계 넘나들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말하기 관행은 몇

몇 언어인류학의 작업들에서 보고되었으나, 주로 특정의 말하기 장르의 표현들이 일상적 말하기 장르에서 사용되는 것들만을 다루어 왔다. 이는 일상적인 말하기 장르가 포괄하는 말하기 상황이 포괄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언어인류학자들은 이러한 말하기 관행을 은유적인 확대로 해석하거나 전략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왔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어휘적으로 군대말의 용어들을 차용하는 예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용어들의 사용은 위의 설명틀로도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업은 전선(戰線)없는 전쟁이다' 라던가 '우리의 태극 전사(戰士)가 승리하였다' 등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은유적인 확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특정의 상황에서는 사업의 치열함을 강조하거나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가를 강조하려는 전략적인 말행위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일어나는 장르간의 경계 이탈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보다 광범위하고 쌍방향으로 일어나는 장르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말하기 관행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먼저 말하기 장르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말하기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말하기 장르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말하기 관행이 제한적으로 일어나거나 한쪽 장르의 말하기 관행이 다른 한쪽의 장르에서만 일어나는 일방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리고 쌍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말사례-5〉

물리적 환경: 토요일 오후 대중음식점

사회적 장면: 각자 자기 소개가 끝나고 앞으로의 군대 생활에 대해 선배 기수가 조언을 해 주고 후배 기수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보는 등 군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이 자유롭게 얘기 됨.

참여자간의 관계: A-B, C보다 한 기수 위, B보다 5살 아래.

B-신병, 늦게 입대하여 나이가 많음.

C-신병, B와는 훈련소에서 안면이 있고

B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음. B보다 4살 아

래.

A: (B에게) 군대 늦게 왔네요. 우리 동기 중에도 나이 많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마 동갑일 텐데…… 우리가 말 놓더라도 이해해요. 군대니까……

B: 예, 그래요.

C: 저 이병님, 훈련같은 건 자주 있습니까?

A: 한달에 두세번 정도 있어. 처음엔 좀 힘들지만 몇 번 해보면 차라리 훈련 받는게 더 좋아질거야. 뭐 또 물어봐. 밖인데 뭐 어때? 어려워하지 말고 개인적인거나 뭐 아무거나 물어봐.

C: 우린 알만한 건 다 알았으니까 저희에게 물어 보십시오.

(B에게) 얘기 좀 해 봐요.

A: 니네는 동진데도 말 안놓냐?

<말사례-5>에서 보여지듯이 참여자들은 군대말과 사제말을 동시에 사용한다. 존대 표현만 놓고 본다면 A와 B는 사제말을 사용하고 C는 군대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말사례들은 조사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관찰되었다.

<말사례-6>

물리적 환경: 대중음식점 앞

사회적 장면: 소집해제자 환송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식 장소를 나오는 시간. 회식을 통하여 보다

비격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를 통하여
성원들의 상호 관계도 보다 시민 사회의 규범
에서 규정되었지만, 회식이 끝나면서 다시 다
소 격식적인 분위기로 바뀐.

참여자간의 관계: A - 9기, B보다 4살 많음.

B - 전년 5기(A와는 16개월 차이), 분대장
으로 보직하였었기 때문에 성원들과 친밀
함. 평소 A에게 바존대말을 사용.

A: 상병님, 그 동안 고생했어요. 축하합니다.

B: 아, 예…… 이병은 아직 고생이 남았죠?
그래도 금방이에요. 그 동안 고마웠어요.

<말사례-6>에서 A는 사제말과 군대말을 혼용하고 있고, B는 사제
말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B는 군대 사회의 규범인 계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제의 존대말을 사용하고 있다.

위의 두 말하기 사례는 영외의 시민 사회의 공간에서 일어난 말하
기 사례들이다. 앞 절에서의 예들과는 달리 말하기 상황에 대한 명확
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화자들은 군대말과 사제말의 두 장르를 넘
나드는 말하기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말사례-7>

물리적 환경: 중대 막사 앞

사회적 장면: 교육훈련장으로 출발하기 전으로 단독군장으로
집합하여 소대, 분대별로 정렬하여 있으며, 농
담을 주고 받거나 가벼운 장난을 하며 출발을
기다리고 있음. 이 때는 특정한 대화 참여자가
쌍대적 관계를 이루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
니라 다중의 화자들이 대화에 참여함. 화자들

은 모두 자대 생활을 5개월 이상하여서로간에 친밀도가 높음.

참여자간의 관계: A - 4기, 문대장을 제외하고는 분대 최고 고참.

B - 7기.

C - 9기, A와 B보다 4살 많음.

A: (B에게) 야, 뻥질이. 니가 교안 좀 들고 가라.

B: 아니, 뻥질이라니? 내가 왜 뻥질이에요?

(주위에서 “말이야 맞는 말이지” 등 농담)

A: 앤 안되겠다. (C에게) 일병, 좀 들어 줄래?

C: 예, 알겠습니다.

B: (A에게) 일병님, 그러지 마요. 내가 뻥질이면 일명님은 나보다 더하지 뭐……

위의 말하기 사례는 영내에서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서도 사제말과 군대말이 화자들 사이에서 교체되면서 사용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B의 ‘해요’ 체의 사용이나 말끝을 흐리는 말행위 등은 사제말의 예이며, C의 ‘합니다’ 체는 군대말의 예이다.

<말사례-8>

물리적 환경: 막사 내

사회적 장면: 정신교육시간으로 막사내에서 소대, 분대별로 앉고 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옆사람이나 앞, 뒤 사람과 제한적으로 쌍대적 관계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화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시민 사회의 규범이 통용되기 어렵다.

참여자간의 관계: A - 7기, B보다 5살 아래.

B - 10기, 일병으로 진급한지 일주일도 채 안됐으며 2개월 빨리 조기 진급하여 A와는 1개월 차로 일병으로 진급 하였음.

A: 야, ! 오늘 정신교육 주제가 뭐지? 준비해 왔어?

B: 어? 야, 야 하지마요. 같은 일병인데 이제 말 놓고 지내지, 어때?

A: 야~ 이젠 기수도 없구나.

<말사례-8>은 비존대에서의 군대말과 사제말의 사용례를 볼 수 있다. A와 B의 관계와 말하기 상황을 고려해 보면, A의 첫 번째 발화는 군대말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용하는 비존대의 군대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B는 사제말의 존대를 사용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네 개의 말하기 사례는 공간적인 배경에 관계없이 사제말과 군대말이 서로 교차되면서 사용됨을 보여준다. 시민 사회의 규범이 강한 영외 시민 사회의 공간에서 군대말이 사용되며, 군대 사회의 규범이 강한 영내의 공간에서도 사제말이 사용됨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 절의 예들과 비교해 보면 이들 말하기 사례들은 실제로 장르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말하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말하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존의 연구(김주관 1989; 이정복 1998, 2001)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정 말하기 장르의 선택은 화자들이 말하기 행위의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전략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몇 가지 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은 화자들이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서 항상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인 계산을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합리성 또는 합목적성이 모든 화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가져야 할 것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행위들이 합리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일한 합리성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은 많은 인류학의 작업들에서 이미 개진된 바 있다. 둘째로는 이러한 전략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공동체의 성원들이 그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말의 변이형들과 그 사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도 역시 가능한 전제는 아니다. 언어인류학이나 사회언어학에서 언어공동체나 언어 목록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언어공동체의 성원들이 실제로는 부분적인 지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말하기 관행은 보다 큰 구조를 고려함으로써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언어공동체의 성원들은 여러 가지 언어변이형들과 그 사용법을 부분적으로나마 알고 있으며, 이들의 교차 사용은 화자들이 갖는 다인격적 속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의 대상 언어공동체에서는 성원들이 군대 사회와 시민 사회에 동시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갖는 주변적인 지위가 이러한 말하기 관행을 초래했을 것이다. 군대 사회의 성원이면서 동시에 시민 사회의 성원이기도 한 다면적인 인격성이 군대말과 사제말이라는 서로 다른 말하기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말하기 행위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말하기 관행은 다인격성에 기인하는 다성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전략이라던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다분히 합목적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말하기 그 자체를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 맺는 말

본고에서는 전통적으로 언어인류학에서 다루어 온 말하기 장르가 상호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하기의 과정에서

장르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상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말하기 관행은 특정 언어공동체의 성원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다인격적인 속성에서 기인하며, 그러한 다인격성이 다성성의 형태로 실현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말하기 관행은 다양한 경험을 쌓아 온 화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제 생활에서 표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있는 그대로의 말하기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즉 언어인류학에서 다루어 온 장르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말행위들이 다성성이라는 개념으로 보다 쉽게 이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제한된 언어공동체의 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말하기 장르의 존재도 제한적이었지만, 보다 일반적인 언어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보다 다양한 장르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말하기 관행, 또는 다성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하기 관행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화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실현해 내는가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반적인 언어공동체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이러한 말하기 관행이 실제로 존재해 왔지만, 과학적 설명이라는 틀에 우리 스스로를 가둠으로써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생생한 말하기 행위들이 아닐까하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을 중심으로 한 언어인류학이 촘스키 언어학의 이상적인 언어공동체와 이상적인 화자라는 전제에 대한 비판으로 출발하였지만, 또 다른 전형성을 찾고자 함으로써 유사한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호
1985 “사병간의 거래 행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관
1989 “존대말 사용의 이상적 규범과 실제적 변이상: 단기 사병의 언어공동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용한
1997 “대우법 수행 중에 발생하는 규범 충돌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위관장교 집단과 상사 집단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수
1984 『존대법의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성기철
1984(1970) “국어 대우법 연구,” 김종훈 편, 『국어 경어법 연구』, 서울: 집문당.
- 이정복
1998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서울: 태학사.
- 왕한석
1987 “언어 인류학,” 미발표 원고.
- 한 길
1991 『국어종결어미 연구』,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2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서울: 도서출판 역락.

Bakhtin, Mikhail M.

- 1968 *Rabelais and His World*, Cambridge: MIT Press.
- 1981 *The Dialogic Imagination: Four Essay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1984 *Problems with Dostoevsky's Poetic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1986 *Speech Genre and Other Late Essay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Basso, Keith H.

- 1979 *Portraits of 'the Whiteman': Linguistic Play and Cultural Symbols Among the Western Apach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zerman, Charles

- 1988 *Shaping Written Knowledge: The Genre and Activity of the Experimental Article in Science*,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Bazerman, Charles

- 1994 "Systems of Genres and the Enactment of Social Intentions," in Aviva Freedman and Peter Medway(eds.), *Genre and the New Rhetoric*, London: Taylor & Francis Ltd., pp.79-101.

Berkenkotter, Carol and Thomas N. Huckin

- 1995 *Genre Knowledge in Disciplinary Communication: Cognition, Culture, Power*.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Briggs, Charles, and Richard Bauman

- 1992 "Genre, Intertextuality, and Social Power,"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2(2):131-172.

Duranti, Alessandro

- 1994 *From Grammar to Politics: Linguistic Anthropology in a Western*

Samoan Vill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ill, Jane H. and Kenneth C. Hill

1986 *Speaking Mexicano: Dynamics of Syncretic Language in Central Mexico*,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Hill, Jane H.

1995 "The Voices of Don Gabriel: Responsibility and Self in a Modern Mexicano Narrative," in Dennis Tedlock and Bruce Mannheim (eds.), *The Dialogic Emergence of Culture*,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p.97-147.

Hymes, Dell H.

1974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An Ethnographic Approach*,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Keenan, Edward L., and Elinor Ochs Keenan

1978 "Becoming a Competent Speaker of Malagasy," in Timothy Shopen(ed.) *Languages and Their Speakers*, Cambridge: Winthrop, pp.113-158.

Miller, C. R.

1984. "Genre as Social Action," *Quarterly Journal of Speech*, 70:151-167.

Orlikowski, Wanda, and JoAnne Yates

1994 "Genre Repertoire: The Structuring of Communicative Practices in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9(4):541-574.

Sherzer, Joel F.

1974 "Namakke, Sunmakke, Kormakke: Three Types of Cuna Speech Event," in Richard Bauman and Joel Sherzer(eds.), *Explorations in the Ethnography of Speak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63-282.

1983 *Kuna Ways of Speaking: An Ethnographic Perspectiv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Voloshinov, V. N.

1986[1930]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Key concepts〉: speech genre, genre-crossing speech, multivocality, military speech, civilian speech, multipersonality

Multivocality or Genre-Crossing Speech Behaviors

Joo-Kwan Kim

This paper aims to describe speech behaviors which show a genre-crossing phenomenon. The speech community of National Guards has two kinds of speech genres, i.e., military and civilian speech genres. They are clearly recognized and used in different speech situations by the members of the speech community.

Linguistic anthropologists, so far, have described a speech genre as a self-contained speech event and/or as unidirectionally genre-crossing speech event, i.e., speech styles in a more specific speech genre are borrowed in the daily speech genre, but not vice versa. Furthermore, the use of speech styles from a specific genre in the daily speech genre is interpreted in terms of speakers' intension.

However, the military and civilian speech genres are interwoven in naturally-occurring utterances in the speech community, The genre-crossing flows are bidirectional, and speakers do not have any intension when they use genre-crossing speech. The genre-crossing speech behaviors can be understood as Bahktinian notion of multivocality which shows the multipersonality of speakers. The genre-crossing speech in the speech

community seems to be caused by the marginal status of the speakers oscillating between members of military and civilian societies.

Studies of genre-crossing speech behaviors are important in order to understand speech behaviors in their natural settings. We may miss important aspects of speech phenomena when we focus only on typified speech behaviors. Studies on those typified speech behaviors seem to be based on another ideal speech community and speaker that anthropologists have criticized. We need to describe utterances as what they are actually occurred in natural settings.